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보지 않고도? 어떻게?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용서를 선사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의심하는 토마스’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토마스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펄펄 끓는 증언에도 도무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런 토마스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의심과 회의를 반복하는 우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제자들보다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토마스가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토마스는 우리의 처지를 성경의 차원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보지 못했고 동시에 토마스만큼이나 주님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토마스를 통해 성경의 장면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불행하게도 사도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증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먼저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의 증언에 의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심을 버리고 이 증언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도로부터 이어온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증언, 곧 선포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고 신앙의 선조들은 이 증언에 따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용서를 얻었습니다. 성체 찬미가는 ‘들음’과 ‘믿음’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 봐도 알 길 없고 /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의심하는 토마스’ 덕에 받은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베드로 사도의 격려에 힘입어 우리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베데 1,8-9)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 2,44)

별이 반짝이는 높은 산중은 봄날에도 무척 춥습니다. 험한 산중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습니다.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앞과 뒤를 서로 지켜주며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떤 위험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조차 같이 소유하며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